|  |  |
| --- | --- |
| **※ 보도자료** | **2019. 01. 18.** |
|  | |
|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업용 법무 관리 시스템 Law.ai(로아이)**  **개발사 휴맥스아이티와 업무협약 체결**  - 중소, 중견 기업도 IT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법무관리 가능 | |
| **(법무법인 디라이트=2019/01/18)**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장인 박경희 변호사는 1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휴맥스빌리지에서 사내법무업무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기업용 법무 관리 시스템, 로아이(Law.ai)를 개발한 휴맥스아이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는 사내 변호사나 법무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인재추천, 사내 법무인력 교육, 원격에서 사내법무를 대행하는 Virtual 사내 법무 서비스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휴맥스아이티는 셋톱박스 제조업체 휴맥스에서 분사한 IT 자회사이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우는 IT 서비스, MES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시스템이 사내법무업무에 도입되면,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한 분쟁대응력 향상, 법무성과 지식자산화를 통한 법무비용 절감, 체결계약서 보관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등 상당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구축비용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없이는 유효한 구축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무전문인력과 예산이 풍부한 대기업 외에는 법무관리에 특화된 IT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장 박경희 변호사와 휴맥스아이티 전병기 대표는 수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중소, 중견기업도 소액의 월정 라이선스료만 내면 체계적인 법무관리용 IT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SaaS(Software as a Service)방식인 Law.ai를 올 1월 초 개발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Law.ai는 사내법무부서에서 수행하는 계약 검토, 법률자문, 소송관리, 프로젝트 관리를 일괄적으로 한 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Law.ai를 통해 협업함으로써 협업한 이력을 보관할 수 있고, 전자메일을 연동하면 모든 메일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며, 시스템 내 자료들은 첨부문서까지 임의어 검색기능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또한 계약만료 전 알림을 통해 일정도 관리할 수 있다. AWS와 팔로알토 시스템의 강력한 보안솔루션을 통하여 안전하게 콘텐츠를 보호 하고, 모바일 기능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Law.ai 서비스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Law.ai 홈페이지(<https://www.law365a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희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장은 “오랜 사내법무경험상 IT시스템의 도입이 법무업무 향상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고 있음에도 중소, 중견기업들의 법무담당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는 사내법무IT시스템까지 연계한 좀더 효율적인 사내법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하였다.  전병기 휴맥스아이티 대표는 “Law.ai를 통해 사내법무담당자들이 체결계약서를 찾거나, 기존 법무업무 히스토리를 확인하느라 낭비하던 시간들을 법률리서치 및 법률이슈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과 같은 더 생산성 있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Law.ai와 관련한 문의는 [info@humaxit.com](mailto:info@humaxit.com) 혹은 031-776-6939로 할 수 있다. | |
|  | |
| **[자료문의]**  남영광 매니저 02-2051-1874 / [yknam@dlightlaw.com](mailto:yknam@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개]** [**http://www.dlightlaw.com**](http://www.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ICT, 블록체인 및 ICO,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핀테크 분야 등에 주요취급 업무역량을 갖추고, 에너지와 환경, 자동차, 항공, SCM, 스타트업, 중국 법무, 북한, 사내법무 지원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들은 법인설립부터 공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며 매출액의 5%를 공익사업을 위해 지출해 왔고, 공익전담변호사를 중심으로 장애, 여성, 환경, 노인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해 왔다.  광고책임 변호사 김지은 / [jek@dlightlaw.com](mailto:jek@dlightlaw.com) | |